KIWOOM DAI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중동 위기 진행에도, 미국의 유가 안정 의지 등으로 낙폭 축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일(화) 미국 증시는 미-이란 전쟁 리스크 확대, 사모펀드 블랙스톤(-3.8%)의 사모대출 일부 환매 중단 소식 등으로 장 초반 2%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 속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 검토 소식 등에 힘입어 장중을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다우 -0.8%, S&P500 -0.9%, 나스닥 -1.0%).

이번 중동 전쟁은 수 시간 단위로 전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뉴스플로우에 후행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 또 전쟁 위기는 "유가 상승 ->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로 연결되며, 이는 시장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제한 및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와 같은 기존 경로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하지만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며, 유가는 사태 종료 시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 이 덕분에 전일 WTI 유가가 9%대 급등한 후 4%대로 상승폭 축소했으며, 미국 증시가 1% 이하로 낙폭을 축소했다는 점이 위안거리. 사태 종료까지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증시에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 하지만 미국(+산유국)들의 유가 안정 의지, 주식시장의 전쟁에 대한 과거 학습 축적 효과 등을 고려 시, 현시점에서 예상 증시 경로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전일 코스피는 연휴 기간 발생한 대외 악재(AI 신용 불안, 미국의 이란 공습)를 일시에 소화하며 하락 출발한 이후 낙폭을 줄이기도 했으나, 장 중반부터 지정학 불안 재고조 속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여파로 폭락세를 연출하며 7%대 하락 마감(코스피 -7.2%, 코스닥 -4.6%).

금일에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 지속, 마이크론(-8.0% 등 미국 반도체주 급락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 다만, 전일 코스피 7% 폭락 과정에서 해당 악재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도 고려 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또 야간 시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1,507원 터치)에 도달한 이후 1,480원 초반까지 내려온 달러/원 환율 변화도 주시해야 하는 요인.

전일 코스피의 7%대 폭락은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고 있는 모습(ex: 코스피 일간 7.2%대 하락은 1980년 이후 역대 14위에 해당. 1위는 9.11테러 당시인 9월 12일 -12.0%, 2위는 닷컴버블 붕괴 시기인 00년 4월 17일 -11.6%, 3위는 금융위기 당시인 08년 10월 24일 -10.6%). 더욱이 삼성전자(-9.9%), SK하이닉스(-11.5%), 현대차(-11.7%) 등 시가총액 최상위 3개 대장주를 포함한 주도업종들의 폭락세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점이 체감 상 전일 폭락의 강도를 키웠던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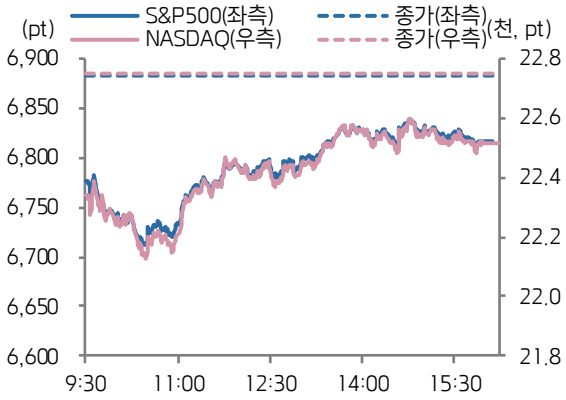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전일의 폭락은 주가 레벨 및 속도 문제가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판단. 연초 이후 2월 말까지 미국 나스닥(-2.5%), 일본 닛케이 225(+16.9%), 독일 닥스(+3.2%), 중국 상해(+4.9%) 등 일본을 제외하고 여타 증시의 성과는 중립 수준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48% 폭등한 상태였기 때문. 이같이 누적된 지수 폭등 부담이 중동 사태와 맞물리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도주들의 가격 되돌림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

물론 속도 조절일 7%대 폭락으로 나타나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이 같은 폭락을 2022년 러-우 사태급으로 인식하려 들 수 있기는 함(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코스피가 같은 해 9월 30일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의 누적 하락률은 -20.7%였음).

그러나 러-우 전쟁은 블랙스완 급으로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였으며, 이번 중동 사태는 1월부터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잠재적인 악재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 더 나아가, 22년 당시에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22년 2월 +33% -> 22년 3월 +25% -> 22년 4월 +20% -> 22년 말 -11%"로 둔화되고 있던 시기였음. 현재는 "25년 12월 +38% -> 26년 1월 +90% -> 26년 2월 +108%"로 이익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1분기 실적시즌 이후에도 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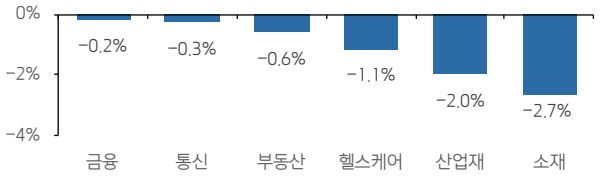
아직 중동 지정학적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그 불안의 여진이 이번주 남은 기간 동안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음. 하지만 반도체 포함 주도주들의 견조한 이익 펀더멘털, 정부의 증시 지원 정책, 올해 몇 차례 조정 당시 성공한 전력이 있던 "조정 시 매수 수요" 등을 감안 시, 지수 추세 하락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 현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성격의 비중 축소 전략보다는, 기존 포지션 유지 혹은 낙폭과대 주도주 매수 전략의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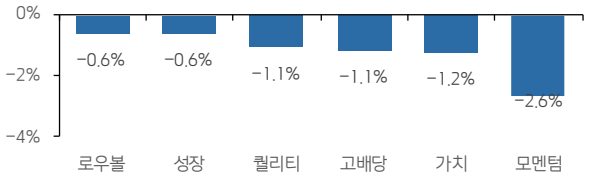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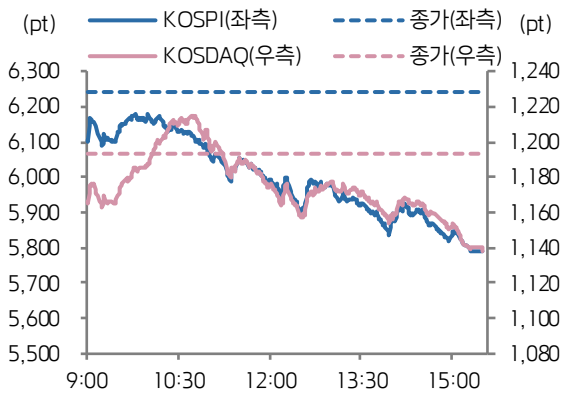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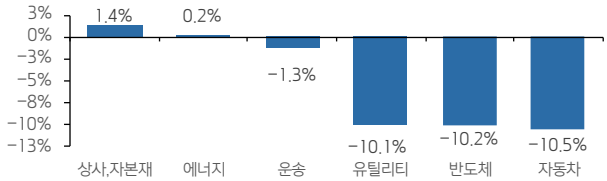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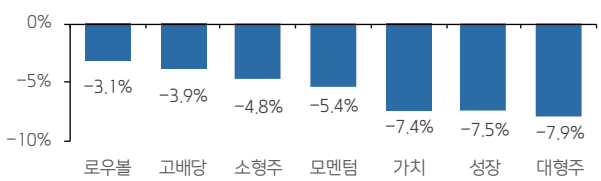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63.75	-0.37%	-2.98%	GM	77.27	-0.63%	-4.98%
마이크로소프트	403.93	+1.35%	-16.48%	일라이릴리	1,007.73	-1.01%	-6.23%
알파벳	303.58	-0.96%	-3.01%	월마트	127.91	+0.64%	+14.81%
메타	655.08	+0.23%	-0.76%	JP모건	300.26	+0.91%	-6.82%
아마존	208.73	+0.16%	-9.57%	엑손모빌	151.83	-1.55%	+26.17%
테슬라	392.43	-2.7%	-12.74%	셰브론	188.77	-0.44%	+23.86%
엔비디아	180.05	-1.33%	-3.46%	제너럴일릭트릭	127.91	+0.6%	+14.8%
브로드컴	313.84	-1.56%	-9.32%	캐터필러	722.18	-4.01%	+26.06%
AMD	190.95	-3.86%	-10.84%	보잉	224.12	-2.45%	+3.22%
마이크론	379.68	-7.99%	+33.03%	넥스트에라	92.59	-0.1%	+15.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791.91	-7.24%	+37.44%	USD/KRW	1,485.70	+3.17%	+3.21%
코스피200	859.40	-7.92%	+41.82%	달러 지수	99.05	+0.68%	+0.74%
코스닥	1,137.70	-4.62%	+22.93%	EUR/USD	1.16	-0.64%	-1.13%
코스닥150	2,010.19	-5.03%	+29.91%	USD/CNH	6.92	+0.27%	-0.81%
S&P500	6,816.63	-0.94%	-0.42%	USD/JPY	157.74	+0.22%	+0.66%
NASDAQ	22,516.69	-1.02%	-3.12%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8,501.27	-0.83%	+0.91%	국고채 3년	3.185	+14.5bp	+23.4bp
VIX	23.57	+9.93%	+57.66%	국고채 10년	3.620	+17.5bp	+23.5bp
러셀2000	2,608.36	-1.79%	+5.09%	미국 국채 2년	3.508	+3.3bp	+3.5bp
필라. 반도체	7,764.88	-4.58%	+9.62%	미국 국채 10년	4.059	+2.5bp	-10.8bp
다우 운송	19,685.81	-0.37%	+13.42%	미국 국채 30년	4.704	+2.4bp	-14bp
상해종합	4,122.68	-1.43%	+3.88%	독일 국채 10년	2.752	+4bp	-10.3bp
항셍 H	8,608.71	-1.07%	-3.4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0,238.85	-1.29%	-5.85%	WTI	74.56	+4.67%	+30.6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81.40	+4.71%	+33.77%
Eurostoxx50	5,771.73	-3.59%	-0.34%	금	5,123.70	-3.54%	+17.14%
MSCI 전세계 지수	1,049.83	-0.66%	+3.47%	은	82.92	-6.07%	+17.45%
MSCI DM 지수	4,532.51	-0.53%	+2.31%	구리	577.35	-2.05%	+1.61%
MSCI EM 지수	1,585.78	-1.55%	+12.92%	BDI	2,187.00	+2.2%	+16.52%
MSCI 한국 ETF	132.34	-10.3%	+36.12%	옥수수	446.50	+0.17%	-0.3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4.00	-0.56%	+10.7%
비트코인	68,033.05	-2%	-22.38%	대두	1,170.50	+0.56%	+10.32%
이더리움	1,968.83	-3.66%	-33.88%	커피	283.15	-0.51%	-15.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3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